생명(生命)과 열광(熱狂)

(계22:1~5)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명과 열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앞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선민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빛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이긴 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묘사하는 대신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생명을 왜 열광과 연관을 시켰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생명과 열광'

열광한다는 게 뭐지요?
우선 열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흥분된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인상으로 포착할 수 있지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도 여러 가지죠, 흥분이라는 게 하여간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북받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 흥분의 종류가 나쁜 쪽으로의 흥분이 있어요. 화를 낸다든지 분노해서 싸울 때, 흥분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흥분이 있고, 또 좀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흥분도 있습니다.
그런 흥분일 경우에는 기쁨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 좋은 쪽의 흥분이지요.
감격과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북받쳐 오를 때.

이럴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순간적이지만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과 축구시합을 한다, 이럴 때 골을 하나 넣었다면 3만 명이건 4만 명이건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저는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 가끔 보면, 인터넷에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이 있으면 동영상이 뜨는데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는 장면이 너무 멋져서 되풀이해서 보기도 하지만, 골 넣는 장면 못지않게 되풀이해서 보는 게, 골이 들어갔을 때 카메라가, 예를 들어 맨유 팀 홈구장에서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운동장에 가득 찬 수만 명의 관중을 찍을 때가 있잖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골을 넣을 때 와~! 하는 그 소리가 와아~ 아! 이렇게 됩니다.
합창 지휘하시는 분이 보면 야단을 칠 거예요, 음을 처음부터 '도! 레!' 이렇게 내지 않고 '레~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와~아~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똑같이 손을 짝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열광이에요, 열광.
또, 무대 위에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걸 그룹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젊은이들이 막 미쳐버리잖아요, 이게 열광이지요, 기쁨의 열광입니다.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축구장에다 아무리 점잖은 유학자를 앉혀놓아도 아마 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과 관계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의 매달 바뀌어서 맺어지는 열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내용들을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참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서나 주석서를 보면, 성경에서 이런 맥락으로 생명이 나오면 으레 얘기하는 게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좀 부족해요, 이처럼 영원한 삶이 생명이라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의 영생이라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간 붉은 용과 짐승도 지옥에서 영생하고 666 표를 받고 이기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으로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궁색하고 모자라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이라는 것이 생명의 양적인 면을 얘기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의 질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양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의 영원한 삶과 천국의 영원한 삶이 다른 것은 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 그리고 열매, 그리고 잎사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의 강,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라는 것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잎사귀라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앞의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십사 만 사천 명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성영신 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건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말과 연관되지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리지도 아니한다'라는 말과 연관되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하늘나라 삶의 특징은,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고 상함이 없다,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증과 주림과 상함이 없는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에서 만국, 수많은 인종과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이 만국 간에서 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상함, 상처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이처럼 왜 땅의 얘기가 또 나오느냐, 지금 재림 이후의 심판까지 끝나고 천국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천국의 삶을 묘사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살고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땅의 삶에 대한 경험 위에 천국을 묘사하면, 땅의 경험과 반대 되는 천국의 삶을 얘기하니까 더 쉽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언어를 이 땅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묘사의 계시를 들을 것이니까 더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경험적 내용들이 자꾸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갈증과 주림과 상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3절 이하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섬기면 갈증도 주림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삶이.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을 마셔서 갈증이 없고 열매를 먹어서 주림이 없고 잎사귀 때문에 상함이 없는 삶이 섬기는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늘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와 경배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 섬긴다고 하는 뜻의 예배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섬긴다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열광이라는 겁니다, 열광.
열광한다는 게 뭐라고 했었죠? 기쁨의 감정이 통제할 수 없도록 끓어오르고 벅차올라서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상태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열광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거나 흥분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열광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좋지 않지요, 뉘앙스가 안 좋은 말이지만… 한 마디로 체면 같은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자아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두하는 것이고 골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사도바울의 삶이 미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체면이고 위신이고 자기 이익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몰두한 삶입니다, 열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광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이게 왜 갈증과 주림과 상처가 없는 삶과 연관이 되는 것인지.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갈증과 주림과 상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와 시합을 할 때 그 갈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에 대한 갈증입니까? 골(Goal)에 대한 갈증입니다.
한 골만 넣어라, 한 골만 넣어라, 그러니까 3만 4만 명이 모여서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에서 3일 동안 지낸 사람들처럼 골을 갈망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거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증 나 하는 골을 누가 하나 넣으면 그 골을 넣은 선수가 아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고 예배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한 갈증이 축구시합 할 때 우리 선수들이 넣어주었으면 하는 골에 대한 갈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 어떤 사람은 복권을 30년 동안 수백만 장을 샀다는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수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돈 갖고 그냥 잘살 것이지.
영상이 나오는데 방의 4면 벽이 책꽂이로 빽빽한데,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천장까지 닿는 높이의 책꽂이에 자기가 이제까지 산 복권을 쫙악 꽂아놓았어요.
얼마나 돈에 대한 갈증이 강했던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복권 1등에 당첨에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2등까지 당첨되어 봤다는 거예요. 30년 넘도록 복권을 사면서 1등에 당첨됐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기쁨의 이유는 복권에 당첨된 것인데, 그 기쁨의 이유를 빼놓고 복권에 당첨됐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게 바로 돈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기쁨을 빼놓고, 그 기쁨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로 적용시켜서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양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보면서 열광하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열광은 갈증이 해결되고 주림이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후반 90분 한 골도 안 들어가다가 lose 타임에서 골을 넣었을 때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2000년도에 유럽에서 있던 챔피언리그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태리가 만났는데, 이태리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90분이 다 지나고 3분인가 lose 타임을 주는데 그 lose 타임도 다 지나가고 3초 남은 상황에 프랑스 선수가 골을 찼습니다.
근데 골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심이 휘슬을 불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로 인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휘슬 전에 공을 찼으니까.
그래서 1:1로 비기고 연장전에서 프랑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볼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태리 국민들이 그 게임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당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질적인 차이.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3초를 남겨놓고 1:1로 비기게 되었다면 아마 졸도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태리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하나는 경악과 슬픔으로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 북받쳐 올라서 졸도했고.
이 기쁨이 북받쳐 올라서 졸도한 이 열광이 바로 생명의 질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이게 바로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다가 이걸 입으로 꺼내서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못해서 샛노랗게 죽어가듯이, 못 견딜 것 같아서 동네에 가서 얘기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멀리하던 동네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이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고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광하는 삶.
그래서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열광한다는 것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셔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쪽이 다 받아들여져야 하는 건데, 내가 장동건 씨를 보고 김태희 씨를 길에서 보고 와! 하고 열광하는데 김태희 씨가 나에게 다가와서 포옹해주는 겁니다, 장동건 씨를 보고 와! 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장동건 씨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에게 와서 악수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처럼 쌍방이

서로 열광하는 상태가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분이 지나고 lose time 3분 중에서 3초가 남았을 때 골이 들어간 프랑스 사람들의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감소되지 않고.
아, 그것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상함이 없어요.
한번 배불렀으면 그 다음에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배부름은 지금 배부른데 또 새롭게 배부르고 또 새롭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언어로 상상할 수가 없고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살면서도 맛보기로 하나님을 섬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고 하나님 때문에 배불러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법정에서 자기변호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자기변호의 기회를 예수님 증거 하는 데에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사도바울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요.

내가 돈 벌러 직장에 나갑니다, 근데 직장에 나가면 전부 승진을 갈망해요, 목말라 합니다.
이처럼 승진을 목말라 하고 승진이 되면 잠깐 배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 승진을 기다리며 또 목말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한 다음에 그 저주 없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과 어린양을 섬기는 것이 저주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돈에 갈증이 나있고 돈 벌었다고 배불러 하는 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승진에 목말라 하잖아요? 승진에 갈증 나있고 승진하면 좋아하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시고 먹고 배불렀을 때와 승진하고 돈 벌었을 때 갈증이 없어지고 배부른 것을 비교해보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의 행복한 것이고 어떤 질인 것인지를, 돈 벌어

서 행복해하고 승진했다고 행복해하고 자식 잘됐다고 좋아하는 이 좋아함이 저주로 보이는 좋아함이, 하나님을 좋아할 때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일에 목말라 하고 있다가 그게 딱 해결이 되면 '와~!' 하고 기뻐하잖아요, 열광하게 됩니다.
그 열광이 우리 생각에 얼마나 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그게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다 못해서, 플러스 영역에서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까지 내려가서 무저갱처럼 밑바닥이 없는 저 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께 매혹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열광하는 복이 크다는 얘깁니다.
돈 벌어서 기뻐하는 것, 돈을 갈망하는 것, 저주래요.
승진을 갈망하고 승진했다고 기뻐하는 그게 바로 저주 상태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삶이 어떨 거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삶은 불이 없어도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거라는 걸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붉은 용과 두 짐승과 더불어 알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옥의 삶이 뜨거운 불이 따로 없어도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홧병이 나서.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돈에 갈증 나 하고, 이 세상의 성공에 갈증 나 하고, 승진에 갈증 나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증 나 할 때 하나님을 갈증 나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에 굶주렸어야 했는데, 돈과 이런 것들에 굶주리는 바람에 진 자가 돼버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질적 내용이 뭡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에 열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예배, 성수주일,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성수주일 해야 된다, 성수주일 해야 된다'
선교도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수가 성 여인에게 선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도 전도하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게 되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을 보고 열광하는데, 돈 6만원 7만원을 내고서도 열광하고 싶어서 스타들의 공연에 참여합니다, 돈도 없는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서.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되요, 성수주일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명적 삶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지요.
세상에 대해서 열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생명은 시작됩니다.
질적 차원에서의 생명, 하나님께 열광하는 것.
하나님께 열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도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결심 하나만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저주로 보일 정도로 참된 열광의 삶을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완벽한 열광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미쳐 날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데, 이 동안에도 진정한 생명적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늘나라에서 하게 될 완벽한 열광의 모형적인 상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